

현대 일본의 젠더와 섹슈얼리티

권숙인 _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인간됨(humanity)에 대한 오랜 질문 중 하나가 자연 대 양육의 문제이고,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 주요 영역 중 하나가 ‘성’에 관한 것이다. 자연 대 양육의 문제는 많은 경우 궁극적인 정답이 없거나 분명히 정리되지 않은 채 끝나기 마련이다. 이는 물론 허탈한 불가지론을 의미한다기보다 그런 질문과 논쟁을 통해 관련 쟁점이 더욱 명료해지고 우리의 이해가 보다 풍부해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성’을 둘러싼 질문이 정교하게 제기되고 성을 이전에 비해 훨씬 폭넓은 탐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수 있게 된 것은 1970년대 초 여성학(women’s studies)이 등장하면서다. 1960년대 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인권운동을 배경으로 등장한 일군의 (여성)학자들은 여성의 역할, 지위, 남성과의 관계 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발견’하였다. 이들은 여성의 삶에 나타나는 폭넓은 다양성과 차이를 드러내며, 생물학적 사실이 인간의 행동과 사회조직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에도 이는 결국 사회문화적으로 ‘중재’(mediated)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sex)은 ‘젠더’(gender)와 개념적으로 분화했으며, 이제 양성 간의 속성과 관계, 실체는 전제되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엄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탐구 과제가 되었다. 이후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여성주의적, 혹은 젠더에 민감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관점으로

대두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젠더 연구(gender studies)로 확장된 연구는 학계에서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어 갔다.

다른 한편 또 다른 성 범주로서 섹슈얼리티 역시 이 시기를 거치며 근본적으로 새롭게 문제시되었다. 개인적 욕망과 쾌락, 혹은 생물학적 본능으로 간주되어 온 우리의 성적 욕망이 실은 다차원적인 권력과 위계관계 속에서 실천되고 실현되는 것으로 자각됨에 따라 섹슈얼리티에서 중요한 질문은 ‘당연한’ 성적 욕망을 넘어 성에 대한 태도와 의식, 이데올로기, 규범과 제도로 향하게 되었다. 이제 섹슈얼리티는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정치, 지식/권력의 문제가 된 것이다. 특히 페미니즘의 부상 속에 젠더화된 섹슈얼리티가 비판적으로 해체되고 후기구조주의, 정신분석학, 비판적 담론 이론 등이 등장하면서 섹슈얼리티는 그 어느 주제 이상으로 뜨거운 이론적 논쟁의 장이 되었다.

일본 지역연구로 들어가 보자. 1970년대 초두까지 팽배했던 지식의 전반적인 젠더 편향성은 일본연구에서도 적용되어 ‘여성’이 그 자체로 연구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일본인’은 곧 ‘일본 남성’으로 가정된 채 분석되었고,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란 가족이나 육아 등 특정 주제를 다룰 때 특정의 역할(어머니나 아내)로 제한되곤 했다. 예컨대 서구학계에서 본격적인 일본 지역연구의 시발점이 된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¹에 묘사된 일본인은 제12장 ‘어린아이는 배운다’에 등장하는 보통명사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남성=일본인이며, 일본의 사회구조를 다룬 또 다른 고전인 나카네 지에(中根千枝)의 『일본 사회의 인간관계』²에 등장하는 일본인 관료와 농민 역시 남성=일본인이다. 셉 린하르트가 지적하듯³ 1960년대와 1970년대 초까지도 일본연구에서 여성은 연구 대상으로서도 연구 주체로서도 거의 부재했던 셈이다.

1 Ruth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Boston: Houghton Mifflin, 1946.

2 中根千枝, 『タテ社会の人間関係』(講談社現代新書 105), 講談社, 1967.

3 Sepp Linhardt, "Paradigmatic Approaches to Japanese Society and Culture by Western Social Scientists", *The Japan Foundation Newsletter*, XXII(3), 1994, pp.7~11.

그러나 학계 전반에 고양된 젠더 민감성은 일본연구에도 영향을 주어 1980년대 이후가 되면 상황이 변화한다. 본격적인 일본 여성 연구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특정 사례나 쟁점, 특정 개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점차 계급, 국가, 공적 노동, 사적 영역과 젠더 분업, 섹슈얼리티와 젠더 정치, 대중문화와 여성, 소수자 등 인문사회과학의 핵심적 연구 영역과 주제로 확대되었다. 학문 전반적으로 거대 담론과 거시적 이론이 힘을 상실한 현재, 일본연구에서도 여성/젠더 연구는 가장 생산성 높은 연구 영역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본연구의 경우 이러한 흐름과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여 젠더/섹슈얼리티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못한 분야다. 그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일본비평』이 ‘현대 일본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가지고 특집을 기획하는 것은 한국 내 일본연구의 지평을 확인하는 기능자로서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편집위원회는 젠더 관계 및 섹슈얼리티에서 나타나는 일본적 양상과 특수성을 검토함으로써 일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현대 일본의 젠더/섹슈얼리티 역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의 사례가 제시하는 이론적 함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한국학계의 일본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논의가 덜 되어 온 일본의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새로운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일본비평』의 편집회의가 늘 그렇듯, 특집 주제의 가능성과 편집의 초점에 대해 풍성하고 즐거운 아이디어가 오가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편집 방향이 탐색되었다. 우선 하나는 근현대 일본의 젠더와 관련된 ‘전통적’이고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사회에 일본의 젠더(및 섹슈얼리티)에 대한 진지한 관심의 역사가 아직 얕고 연구 축적도 단편적인 수준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기획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근대적 젠더 분업의 일본적 정착과 전개, 사무라이-샐러리맨 남성성의 연속과 변용, 현모양처 이념의 정착과 변형, 주부·가사노동·돌봄의 정치, 모성 논쟁, 여성운동, 여성노동 등의 주제는 여성/젠더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로, 그 일본적인 양상을 (재)검토하는 것은 젠더 관점에서 근현대 일본사회의 특성

을 되묻는 데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제일 것이다.

반면 ‘기본’과 ‘핵심’에 방점을 둔 이러한 기획은 본래의 의도와 달리 조금은 고루하고 상투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기본에 충실하지만 현재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제제기를 지향하는 『일본비평』의 취지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싸고 일본사회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양상과 도전, ‘비주류’나 ‘주변부’의 실천 등을 시야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편집진의 동의는 그간의 기획 취지를 볼 때 일관성 있는 결론이었다. 애초 섭외했던 글이 온전히 다 실리지 못했지만, 현재의 구성은 이러한 기획의도를 반영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다. 이번 특집에 실린 논문들은 현재, 혹은 시간 폭을 조금 확대해 전후 일본사회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전개되어 온 중요한 양상과 변화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들은 민족지적 방법, 사진과 기록물, (정책)담론과 언설, 만화와 영화 등의 대중문화 콘텐츠를 포함하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여러 영역과 현장에서 젠더를 둘러싼 역할과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변화하고 있는지,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제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지은숙의 「가족주의 사회와 비혼여성의 새로운 친밀권」은 가족과 젠더 정체성/역할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것의 현재적 전개 양상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소중한 연구물이다. 필자는 전쟁독신자의 자조(自助) 모임으로 출발한 ‘독신부인연맹’이 가족주의 사회 속에서, 혹은 가족주의 사회와 대면/대항하면서 자신들만의 대안적 의지처(친밀권)를 모색해 온 여정을 재구성한다. 장기간에 걸친 이들의 상호 신뢰와 연대의 실천 사례를 통해 새로운 친밀권의 내용과 조건을 탐색하는 이 글은 비혼자가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의 일본에서 가족이라는 제도 밖에 놓인 사람들이 가족과는 다른 친밀권(親密圈)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해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매우 중요한 실천적·정책적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필자는 남녀 간의 성적 연대와 역할 분업으로 구성된 근대가족은 “연수가 다했으”, 따라서 향후 가족제도 밖에 놓인 사람들의 친밀권 문제는 ‘결혼에의 권유’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아울러 현재 남성의 생애미혼율⁴이 여성의 두 배에 달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독신여성들의 실천과 ‘좌절’은 향후 독신남성들 앞에 놓인 과제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음을 환기시키는 것 같다.

공사 영역의 분리와 젠더 관계는 여성학적 문제의식이 대두한 이래 가장 중요한 분석틀이자 화두였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분명해진 점은 단순히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이 특정 성의 지위나 역할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과, 사적 영역이 권력관계와 무관한 것이 절대 아니라 당대의 역사적 맥락이나 정치경제적 환경 등 공적 세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있었다. 지은숙의 글이 결혼이라는 사적 영역이 역사의 특정 국면에서 뒤틀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특정 집단의 여성들이 자신들만의 선택과 실천을 통해 공적인 세계와 조우하며 공적 세계에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한 과정과 결과가 갖는 의미를 조망했다면, 정미애와 사토 후미카의 글은 여성이 공적 영역, 그것도 가장 ‘강성’(hardcore) 공적 영역으로 ‘통합’되는 양상과 그 효과를 다루고 있다. 특히 정치와 군대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남성성’과의 연결 속에 이해되어 온 집단임을 고려한다면 이 두 글은 그 주제만으로도 참신하다.

정미애의 「마돈나 선풍, 여성 자객, 오자와 겔즈」는 근래 일본의 선거 국면에서 반복되었던, 거물급 남성 정치인의 낙점을 받아 선거에 출마해 대중적 관심과 흥미를 기반으로 선거에 승리했지만 후속 선거에서 재선하지 못하고 사라져갔던 여성 정치인들을 다룬 흥미로운 글이다. 1990년 사회당의 ‘마돈나 선풍’, 2005년 중의원선거에서 활약한 고이즈미의 ‘여성 자객들’, 2009년 중의원선거에서 주목을 받은 ‘오자와 겔즈’의 ‘성취’와 ‘실패’는 위에서 언급했던 공사 영역 분리와 젠더 지위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즉 여성 정치세력의 형성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위기 타개를 위한 일회성 흥

4 생애미혼자는 50세까지 법적으로 혼인한 적인 없는 사람을 말하며, 2010년 현재 일본 남성의 생애미혼율은 20.1%로 여성(10.6%)에 비해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 남성의 2010년 생애미혼율은 5%선으로 20년 전 일본 남성과 비슷한 수준이다.

행 카드로 활용된 이들의 행적은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에서 핵심적인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진출하느냐의 문제라는 오래된 깨달음을 분명하게 예시해 준다.

다만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예리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 단순하게 충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존재 유무뿐만 아니라 ‘여성’ 정치인의 존재 방식과 정체성에 대한 일본사회의 의식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마돈나’와 ‘여성자객’은 언뜻 여성이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부여되는 상투적 정체성인 ‘마돈나 아니면 마녀’의 도식을 따르는 듯 싶지만, ‘칠드런’, ‘걸즈’로 표상되는 남성 정치인(혹은 유권자)의 온정주의적(paternalistic) 태도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데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사토 후미카·유병완의 “카무플라주된 군대”는 적어도 동아시아의 맥락에서는 정치 영역 이상으로 젠더화된 공적 영역인 군대(자위대)로 분석 대상을 옮겨간다. 특히나 실질적으로는 군대로서 기능하고 있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군대’가 아닌 자위대의 특수한 정체를 고려하면, 이 특수 조직과(여성)젠더의 엇빔 관계는 충분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사실 필자의 논지는 간단명료하다. 전후 일본은 자위대의 군사적 성격을 지속적으로 카무플라주(위장과 은폐)해 왔고 이런 과정에서 중요하게 동원·활용된 것이 여성이라는 점, 따라서 자위대에 여성을 통합시켜 온 것을 선불리 젠더 주류화라는 프레임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후 일본사회의 각 국면에서 자위대가 표방해 온 정체성(제국군과의 차별화, 시민적 성격의 자위대, 근대적이고 선진적 조직, 평화 유지자)과 이미지를 대 사회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자원으로 여성을 자위대원으로 포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도 지적하듯이 “군대의 폭력적/공격적 성격을 카무플라주하는 여성 군인의 공헌”은 일본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군대의 여성 포섭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입장과 군대의 젠더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 방식은 각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해당 사회에서 군대가 차지하고 있

는 위치와 군대의 젠더화된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위대의 특수한 위치성을 젠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 이 글은 군대라는 공적 영역과 젠더의 관계성을 비교학적 맥락에서 고찰해 볼 수 있게 한다.

이어지는 스키우라 이쿠코의 「일본 ‘레즈비언 전후사’ 다시 읽기」는 레즈비언의 섹슈얼리티(‘성욕’) 문제를 흥미롭게 풀어나간 글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젠더/섹슈얼리티의 상호 겹침과 침투 양상을 레즈비언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이해방식을 통해 드러낸다. 저자는 근현대 일본에서 ‘여성 간의 친밀함’을 인식할 때 ‘성욕’이 누락되어 왔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누락이 결국 여성에 대한 사회통념에 근거한 것임을 지적한다. 예컨대 성욕을 인간의 신체를 지배하는 본질로 간주하고 특권적 지위를 부여했던 통속성욕학이 1920년대에 들어서는 homosexuality의 번역어에 ‘성욕’이 아닌 ‘사랑’(愛)이라는 말을 채용했고, 이러한 인식 전환은 여학생들 간의 친밀한 관계가 사회문제로 대두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즉 “여학생 간의 관계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라는 젠더 규범이 특정한 성의 ‘성욕’에 대한 인식을 좌우해 버린 셈이다.⁵

이어 필자는 전후에도 레즈비언에 대한 언설에서 여성의 성적인 주제화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지속되었음을 지적한다. 비록 1960년대 들어 레즈비언에 대한 언설과 표상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그 핵심은 여전히 남성의 (이성애적) 욕망을 제창하고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1970년대 이후 레즈비언들의 집합적 활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지만, 젠더-비대칭적으로 구축된 ‘성욕’ 개념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고해 (레즈비언)여성의 ‘성욕’을 가시화시키는 노력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일본 레즈비언의 운동을 “섹슈얼리티의 역사”로 다시 조망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어지는 두 글은 각각 만화와 영화라는 대중문화의 콘텐츠를 분석함

5 20세기 초, 모더니티를 구현하는 주요 상징 중 하나였던 ‘여학생’의 존재성에 대해선 향후 보다 폭넓은 시야에서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으로써 현대 일본사회에서 섹슈얼리티/젠더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김효진의 「요시나가 후미의 「오오쿠」(大奥)」는 요시나가의 연작 만화로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오오쿠」를 소재로 이 대중만화 콘텐츠의 여성주의적 역사 재해석의 가능성을 질문한다. 에도시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되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전도시키는 설정, 즉 최고권력자인 쇼군(將軍)을 비롯해 노동을 포함한 사회적 역할의 주도권을 모두 여성이 쥐고 있는 상상적 설정은 역사적 사실로서 에도시대의 가부장적 질서와 교차되면서 독자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저자는 이 만화를 요시나가 판(version) '여성의 관점에서 역사 다시 읽기'의 텍스트로 보고 그 특성과 차별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가장 대중적인 장르를 통해 작품성을 유지하면서도 젠더의 자의성(과 따라서 변용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준 작품으로 상찬한다.

특히 흥미로운 분석은 요시나가 후미가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젠더의 해체와 재구성”을 단순히 텍스트에서 찾지 않고 소녀만화와 BL만화로 이어지는 ‘여성만화’라는 장르의 전통과 가능성 속에서 분석해냄으로써 소녀/여성만화 장르 자체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시도한 지점이다. 여성/소녀만화 장르와 페미니즘이라는 얼핏 상충적인 결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양자의 상호작용은 저자로부터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기대하게 만들며 대중문화 연구가 특정 사례나 쟁점에 대한 고찰을 넘어 보다 전반적인 이론적 논의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박규태의 「현대 일본영화와 섹슈얼리티」는 “섹슈얼리티의 그로테스크성에 대한 시적, 철학적, 종교적인 묘사에 뛰어”난 소노 시온 감독의 문제작 〈사랑의 죄〉를 분석 고리로 삼아 일본 영상문화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과도한, 혹은 기괴한 표현 방식과 그 의미를 분석한다. 저자는 〈사랑의 죄〉가 내포하는 섹슈얼리티와 여성성, 남성의 성적 환상과 젠더 정체성, 그리고 그것의 전복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핑크영화, 로망포르노, AV(adult video)와의 연결점 속에 이 영화를 위치시켜 흥미롭고 도전적인 독해를 시도한다. 여기서 필자는 일견 여성의 성적 주체화를 시도하

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영상 콘텐츠들에 내포된, 여전히 집요한 “여자에 대한 남자의 포르노 환상”과 “근본적으로 여성 혐오에 토대를 둔 ‘호모소셜’한 남성연대적 사회”로서의 일본사회를 끄집어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랑의 죄>의 가능성이란 여주인공들이 성적 실천과 행동을 통해 이와 같은 호모소셜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일본사회에 ‘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지점이다. 예컨대 ‘완벽한 여성다움’을 구현하고 있는 이즈미나 성공한 커리어우먼 미쓰코가 스스로 싸구려 창녀가 되어 헐값에 몸을 파는 행동은 상투적일 정도로 여전한 남성 중심적인 성적 환상(“로망”)에 대한 가장 래디컬하고 투박한 조소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저항의 몸짓은 자기 자신의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결국은 (미쓰코의 경우 모친을 통해) 응징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불가능한 꿈”으로 독해되고 있는데, 이 “불가능성”의 현실적 함의에 대한 저자의 입장이 궁금해진다.

서평으로 기획된 신하경의 「일본 젠더/섹슈얼리티 논의의 현재」는 이상의 연구논문들을 아주 잘 보완해 주는 깔끔한 글이다. 저자는 일본의 대표적인 페미니즘 이론가 중 한 명인 다케무라 가즈코(竹村和子)의 주요 저작에 대한 리뷰를 통해 일본에서 진행되어 온 젠더/섹슈얼리티와 관련된 페미니즘 진영의 주요 논의와 쟁점을 충실히 안내해 준다. 다케무라가 푸코, 라캉, 버틀러 등 젠더/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최근의 이론적 전개와 논쟁을 일본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검토·수용하는 양상은 젠더/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일본학계의 논의와 이론적 발전의 수준을 가늠케 해준다. 서구 학계를 기본적 참조로 대접해 온 한국 학계의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우리는 20세기 초에 본격화한 일본 페미니즘의 역사와 내공을 쉽게 환기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신하경의 글은 이러한 관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유용한 참조 글이다.

끝으로 젠더와 섹슈얼리티로 표제어를 뽑으면서도 남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직접적으로 다룬 글을 신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일본비평』의 이전 기획에서 다루었던 초식남, 청년 노동시장과 청년기 이행, 소토코모리, 일본 지역사회와 ‘양키’문화의 쇠퇴 등을 통해 아쉬운 대로 근대적인 성별분

업의 와해와 이를 동반한 전사적(戰士的) 남성성의 급격한 변모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사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특집 논문들 외에도 이번 호에는 네 편의 글을 더 실었다. 우선 서평공모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던 이영진의 「근대 일본 사회의 원한의 한 계보」는 이시무라 미치코의 『슬픈 미나마타』에 대한 ‘서평’ 형식을 띠고 있지만, 단순히 특정 서적이나 특정 사회(일본)를 넘어서서 보다 보편적으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이에 대한 민중의 원함과 분노의 얽힘에 대한 섬세 하면서도 묵직한 사유가 인상적인 글이다. 이어지는 일반 논문 세 편은 다루는 주제와 시기라는 면에서 『일본비평』의 ‘폭’을 한껏 넓혀주고 있다. 최호영의 「야나기 무네키의 생명사상과 1920년대 초기 한국시의 공동체 문제」는 1920년대 초기 조선의 시에 나타난 생명 의식과 야나기 무네키의 생명 담론과의 연결성을 꼼꼼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물이다. 박수철의 「일본 중세 국가론의 현황과 과제」는 일본의 중세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학계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논고로, 중세를 전공하고 있는 필자가 이 주제에 대해 향후 어떤 이론을 구축해 갈지 기대하게 만든다. 남경필의 「일본 ‘국가기구’의 변화와 연속성」은 던리비의 관청형성모델을 적용하여 일본 중앙정부 기구의 변화와 연속성을 실제 해당 부처의 예산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귀한 글을 게재해 준 필자 모두에게 감사하며, 성하(盛夏)의 열기 속에 독자들의 관심 또한 기대해 본다.